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유아의 자율성과 연대감 발달을 중심으로*

오 현 숙[†]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1차적인 책임과 부담을 안고 있는 어머니 측면에서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기도 A시 소재의 세 유치원에 재원중인 83명의 유치원생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성격, 어머니의 자녀 기질 만족도 및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 JTCI/3-6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유의하게 불만을 나타냈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성향이 높을수록 유의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도 4개 상위척도인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에서 모두 자녀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아동중심의 양육행동이 나타났다. 자율성과 연대감 발달을 통하여 유아의 성격발달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자녀의 위험회피 및 인내력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자율성 발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감 발달은 유아의 자극추구와 사회적 민감성 기질 자체가 가장 설명력이 큰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성격발달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일방적 책임이 있지 않으며 유아 자신의 타고난 기질 또한 함께 관련됨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 측면의 요인 중에서는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곧 정서가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 큰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어머니 정서의 중요성, 자녀 기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어머니 교육과 관련되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어머니의 만족도, 양육행동, 기질, 성격, 성격발달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오현숙,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E-mail : hyunsookoh@hs.ac.kr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여성의 관심이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출세 기회에 크게 집중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는 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은 여전히 단연 절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 가정의 자녀수가 대부분 하나나 둘이다 보니 자녀를 잘 기르겠다는 부모의 열망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됨(parenting)은 그러나 긴 기간 동안의 힘든 일이며 부모가 일상적인 양육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부모됨이 시작되면서부터 수반되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관심이 크면 클수록 양육자의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남성보다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남혜순, 2003; 한세영, 박성연, 1996) 당연한 일이다. 특히 양육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지각될 때 이 스트레스와 책임감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괴로움은 훨씬 커지게 된다.

그런데 양육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낙심과 절망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성* 발달의 문제가 전적으로 양육자의 책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서(Goth, 2000)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양육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어머니에게 있지 않다면 이런 사실의 인식은 어머니들을 과도한 책임감에서 훨씬 자유롭게 할 것이며 자녀의 발달에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자원을 갖게 할 것이다.

1) 본 논문에서는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 JTCI의 번역에 따라 personality를 인성으로 character를 성격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자들 또한 오래 전부터 양육과 발달의 주제를 두고 무엇이 아동의 인성발달에 가장 크게 관여할 것인가에 몰두해왔다(Harris, 1998, 1999, 2000; Plomin, 1990; Rothbart, & Bates, 1998). 1957년 Thomas와 Chess의 뉴욕중단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기질연구가 시작된 이래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 및 성격특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김연옥, 김영희, 2002, 최영희, 1995, Belsky, Rovine, & Taylor, 1984).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유아의 기질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는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강압적인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Lee & Bates, 1985). 까다롭고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이며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유아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초래하며 따라서 이런 유아의 어머니는 아기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Milliones, 1978)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적다(천희영, 1993; Crockenberg, 1986)고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에 상반되게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의 어머니가 오히려 유아에게 더욱 열중하여 더 많은 반응을 보이며 애정적으로 돌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 되었다(Bates, Olson, Pettit, & Bayles, 1982; Lengua, West, & Sandler, 1998).

이렇게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관계가 반드시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논의와 함께 일련의 다른 연구들은 영/유아의 기질 자체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이를 지각하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Baker & Heller, 1996).

영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며(Mercer, 1985; 백미례, 1990, 방경숙, 2000) 이것은 바람직한 모-아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어머니의 자신감과 만족감은 아동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2003). 즉 유아의 기질은 순한 기질일 경우에도 부모가 주도성 없는 기질이라 해석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대할 수 있고 까다로운 기질도 부모에 따라 자녀의 까다로움을 아이다운 특성으로 보고 더욱 잘 해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동 발달에 두고 있다.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동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그 결과인 성격발달과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유아의 성격발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령에 따른 행동 역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기질의 변동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든지(정옥분 등, 2003; Kagan, Reznic, & Snidman, 1988; Rubin, Hastings, Chen, Stewart & McNichol, 1998), 기질 및 부모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 발달(Kagan, 1994; Kochanska & Aksan, 1995) 또는 자기효능감 발달(우희정, 이숙, 1994; 전인옥, 1996; 홍계옥, 2003)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힘

으로써 부분적으로만 성격 출현의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 결과인 총체적 성격 발달과 갖는 관계 연구가 드문 것은 유아기는 아직 특정의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성격형성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최근까지 유아의 성격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가 부재했던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성격연구는 만 3세 이상의 유아에게서도 총체적 성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Gloninger, 1987, 1999; Cloninger & Svrakic, 1997, Goth, in print).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 기질 만족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성격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무엇이 성격발달에 가장 크게 관여할 것인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이라는 정서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으로 구분하였다.

Thomas와 Chess(1977)는 아동이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조화적합성(goodness-of-fit)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조화적합성이란 유아가 속한 환경의 속성, 기회, 기대, 요구가 유아의 능력, 동기, 행동유형 등의 특성과 적절히 조화될 때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이 가능함을 말한다. 반면 환경과 아동의 특성이 불일치하여 조화가 부적합할 때는 왜곡된 발달과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환경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말하며 이 양육태도는 또한 무엇보다 어머니의 자녀의 특성에 대한 만족도를 이룬다. 따라서 최영희(1993)는 모-아간의 조화/부조화를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에 대

해 만족해하는 정도를 조화로 보고 조사하였다.

한편 기질과 환경의 조화를 다룬 일련의 다른 연구들(Goth, 2000; Maziade, 1989)은 예를 들어 활동성이 매우 높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의 경우 이러한 기질적 요구와 행동방식이 환경에 의해서 억압되고 거부될 때만 유아와 환경간의 갈등이 생김을 강조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 중 행동 측면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통제와 거부를 당하지 않고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좋은 규율체계의 가정에 속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거의 부적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환경과 유아 간의 조화/부조화에 대해서 어머니의 만족도 또는 반응 행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이 두 변인 모두가 어머니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두 변인은 또한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대응 양육행동으로 세분화하여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서 유아의 성격발달에 유아 자신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 기질 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서로 어떤 다른 관련성을 갖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어머니 교육을 위한 새롭고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어머니들이 유아의 성격발달이 어머니의 일방적 책임이 아님을 알게 됨으로써 양육에의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에서 벗어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자

녀의 성격발달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검사들 중에는 유아의 총체적인 성격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영/유아용 기질 검사로는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Scale, Carey & McDevitt 1977)나 IBQ (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Rothbart, 1981) 또는 이 검사들의 변형들(천희영, 1991)인데 이런 검사들은 척도 간의 개념의 중복과 상관성이 크다는 문제(Rothbart & Bates, 1998)를 나타낸다. 기존의 검사들이 생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Thomas와 Chess의 요인분석에 의한 기질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1994)의 심리생물인성모델에 의해 만들어진 JTCI(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검사군들은 이러한 기존의 기질검사들이 나타내는 개념상의 문제를 생물학적, 약리학적 연구를 통해 극복했다(Cloninger, 1987, 1999; Cloninger & Svrakic, 1997). JTCI는 기질(Temperament)과 성격(Character)을 인성(Personality)을 이루는 두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해서는 한 모델 안에서 종단 연구 없이도 개인의 타고난 속성인 기질과 이 기질이 바탕이 되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후천적으로 발달한 성격을 동시에 구분 측정할 수 있어 유용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JTCI/3-6을 이용하여 유아의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개의 상위차원 중 성격의 성숙도를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두 개의 척도, 곧 자율성과 연대감 발달을 중심으로 다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만족도는 관계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대응하는 양육행동과는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 대응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요인들 중 무엇이 유아의 자율성 발달에 가장 크게 관련되는가?
4.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 대응 양육행동, 유아의 기질 요인들 중 무엇이 유아의 연대감 발달에 가장 크게 관련되는가?

방 법

본 연구는 유아의 성격발달에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 중 무엇이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유아의 타고난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 및 대응 양육행동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근교 신도시인 경기도 A시에 소재하는 세 유치원에 재원 중인 3-6세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총 11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95개의 응답된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이 중 4개 이상의 문항에 무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시켜 총 83명의 유아의 어머니가 최종 연구 대상이 되었다. 남아의 어머니는 45명 여아의 어머니는 38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73세 (SD=1.03) 이었고, 여기서 남아의 평균연령은 4.87 (SD=1.04), 여아의 평균연령은 4.54 (SD=.99)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육아형태는 표 1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1. 유아와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육아형태

변인	범주	빈도 (%)
변인	어머니	61 (73.5)
	1차 양육자	어머니와 공동육아 22 (26.5)
	제삼자 0 (0)	
어머니 연령	무응답 0 (0)	
	35세 이하	55 (66.3)
	36-40세	22 (26.5)
	41세 이상	6 (7.2)
어머니 교육수준	무응답 0 (0)	
	대졸 이상	58 (69.9)
	고졸	25 (30.1)
부모 소득 수준	중졸 이하 0 (0)	
	무응답 0 (0)	
	년 4000 만원 이상	9 (10.8)
	년 2000-4000 만원	69 (83.1)
가족사	년 2000 만원 이하	2 (2.4)
	무응답 3 (3.6)	
	친부모 가정	82 (98.8)
	이혼 및 별거 가정	1 (1.2)
형제 수	기타 편모 가정	0 (0)
	재혼 가정	0 (0)
	무응답 0 (0)	
	1	16 (19.3)
형제서열	2	56 (67.5)
	3	9 (10.8)
	4	2 (2.4)
	1	52 (62.7)
형제서열	2	28 (33.9)
	3	2 (2.4)
	4	1 (1.2)

표를 통해 볼 때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어머니는 사회경제적으로는 중류에 해당되며 환경적으로는 대부분 특별한 생애사건 (life event) 이 없는 평범한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JTCl/3-6(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

JTCl/3-6(Goth, in print)은 Cloninger등(1994)의 심리생물인성 모델에 따라 만들어진 JTCl검사군들 중의 하나로 만 3-6세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이다. 국내에는 JTCl의 청소년 및 대

학생용이 표준화되어있다(오현숙, 민병배 2004).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JTCl 개념들의 한국어 번안은 한국판 JTCl에 따른 것이다. Cloninger의 모델에서 기질은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성향으로 정의된다.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행동 활성화역제 및 유지에 관한 우리 뇌의 행동조절시스템이 어떻게 발달되어있는가의 개인차에 해당

표 2.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 JTCl/3-6의 구성

인성 차원 (상위 척도)	문항수	하위척도	신뢰도 (Cronbach α)
기질차원			
자극추구	15	1. 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	.77
		2. 충동성/심사숙고	
		3. 무절제/절제	
		4. 자유분방/질서정연	
위협회피	16	1. 예기불안/낙천성	.67
		2.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3. 낯선사람에 대한 수줍음	
		4. 쉽게 지침	
사회적 민감성	12	1. 정서적 감수성	.74
		2. 친밀감/거리두기	
		3. 의존/독립	
인내력	12	1. 끈기	.66
		2. 완벽주의	
성격차원			
자율성	11	1. 목적의식	.67
		2. 자기수용/자기불만	
연대감	10	1. 타인수용	.77
		2. 공감/둔감	
자기초월	10	1. 환상	.84
		2. 영성	

된다. 따라서 JTICI의 상위 기질척도는 보상단서와 벌의 신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동활성화 시스템에 해당되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벌의 단서나 보상부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동적인 억제와 관련되는 위험회피(Harm Avoidance), 한 번 보상된 행동은 계속되는 지속적 강화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행동유지 시스템에 해당되는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및 인내력(Persistence)의 네 척도로 구성된다. 이 기질적 개념들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우리의 뇌 구조와 관련되며 도파민, 세로토닌, 노어아드레날린의 신경전달물질의 방출과도 연관된다. 기질은 일생동안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속성으로 설명된다.

Cloninger의 모델에서 성격은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체험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좌우하는 개인의 목적과 가치관에 관련되며 자기개념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성격의 상위척도는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자율적 자아로 바라보는지, 얼마만큼 사회의 일부로 바라보는지, 또 얼마만큼 우주의 일부로 보는지에 따라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세 척도로 나뉜다. 총 19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고 8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문항을 삭제하여 총 85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에서 ‘그렇지 않다’까지 4점 척도로 평가된다. JTICI/3-6의 기질과 성격 특성에 대한 어머니 만족도도 만족에서 매우 불만까지 4점 척도로, 또 대응 양육행동도 아동중심의 대응(맞추어준다)에서 성인중심의 대응(개의치 않고 내 생각대로)까지 4점 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상위 성격 척도 중 자기초월 척도를 제외한 자율성과 연대감 척도만이 성격발달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기초월 척도는 자율성과 연대감과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척도가 나타내는 의미를 진단할 수 없고 항상 자율성 및 연대감과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따라 발달 상의 성숙 또는 비성숙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JTICI/3-6은 또한 자율성과 연대감만으로도 성격의 성숙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3은 JTICI/3-6의 척도별 내적합치도와 비교하여 부모의 자녀기질 만족도 및 대응 양육행동의 내적합치도에 따른 신뢰도 계수를 보여준다. JTICI/3-6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의 계수는 독일 연구의 경우(Goth, in print) 사회적 민감성과 자기초월에서만 .71과 .73을 나타내고 나머지 5개 상위 척도에선 모두 .82-.86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척도에서 .70 이하의 계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4개의 척도에서만 .77-.84의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비교적 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

표 3. 검사의 신뢰도

	JTICI/3-6	어머니 만족도	양육행동
자극추구	.77	.77	.84
위험회피	.67	.78	.74
사회적 민감성	.74	.69	.75
인내력	.66	.77	.74
자율성	.67	.71	.68
연대감	.77	.68	.93
자기초월	.84	.74	.68

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만족도에 서는 .68-.78, 양육행동에서는 .68-.93에 분포하고 대부분의 신뢰도 계수가 .70 이상을 나타내므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절차

연구자는 서울 근교 경기도 A시의 소규모 세 유치원을 직접 내원하여 JTICI/3-6 110부를 해당 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연구 참여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유치원에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엔 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각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를 권장하였으나 참여 원칙은 어머니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수거된 95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8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의 관계 및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하였다. 유아의 성격발달에 유아 자신의 기질, 어머니의 만족도 및 양육행동 중 무엇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

아의 기질과 어머니 측면의 모든 변인들을 단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성격발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인들을 찾게 하였다.

결 과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만족도 간의 관계

표 4는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만족도와는 정적 또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아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성향은 어머니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적 민감성은 설명력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인내력 기질 성향은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녀의 자극추구 성향과 위험회피 기질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불만스러워하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성향이 높을수록 만족해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대응하는 양육행동과의 관계

표 5를 통해 볼 때 유아의 기질을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기질에 대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네 개의 전 상위척도

표 4.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유아의 기질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어머니의 만족도	-.82***	-.74***	.30**	.78***

** $p < .01$, *** $p < .001$

표 5.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양육행동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68***	.35***	.50***	.55***

*** $p < .001$

표 6. 자율성 발달의 설명 요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순위	예측변인	R ²	R ² 증가분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β	t
1.	어머니 만족도: 위험회피	.22	.22	.21	2.69	.42	4.29***
2.	어머니만족도: 인내력	.29	.07	.27	2.59	.26	2.70**
	합계		.29				

** $p < .01$, *** $p < .001$

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 이는 모든 척도에서 어머니의 만족도가 커질수록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에 잘 맞추어주는 아동중심의 양육행동을 보임을 말한다.

유아의 자율성발달

표 6은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 및 양육행동의 요인들 중에서 자율성 발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인은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임을 보여준다. 총 변량의 22 %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는 7 %를 추가 설명하는 유아의 인내력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이다. 표에 나타나는 회귀계수는 유아의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에 대해서 어머니가 만족할수록 자율성 발달은 잘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 회귀분석 모형에 의해서 자율성은 도합 29% 설명된다. 이 모형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95, VIF=2.36)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0)=16.08, p < .000$.

유아의 연대감 발달

표 7을 통해 볼 때 연대감 발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인은 유아 자신의 자극추구 기질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변인은 총 변량의 49 %를 설명하며 다음 순의 예측변인은 총 변량의 4 %를 설명하는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인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계수를 통해 볼 때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 성향이 적을수록, 반면 사회적 민감성 기질 성향이 클수록 연대감 발달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대감을 설명하는 이 회귀모형은 총 변량의 53 %를 설명하며,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99, VIF=1.01) 모형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80)=44.23, p \leq .000$.

표 7. 연대감 발달의 설명 요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순위	예측변인	R ²	R ² 증가분	수정된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β	t
1.	유아 기질: 자극추구	.49	.49	.49	3.42	-.72	-9.28***
2.	유아 기질: 사회적민감성	.53	.04	.51	3.32	-.19	2.40*
	합계		.53				

* $p < .05$,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만 3-6세 유아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자녀의 성격발달과의 관계를 한 모델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그 결과인 성격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킨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에서 착안하였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격발달이 전적으로 양육의 영향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서 오는 일방적인 책임감과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유아발달에 대한 새롭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자녀들의 성격발달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종단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유아의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된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 JTCI/3-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설정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자극

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성향이 높을 때 불만스러워했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성향이 높을 때 만족스러워했다. 즉 높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특성은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 특성은 긍정적으로 지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의 성격특성에 따라 자녀의 기질을 지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Baker & Heller, 1996)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들의 자녀 기질에 대한 지각은 Cloninger 등(1994, 1997)이 타 기질특성과 함께 작용하여 폭발적이고(높은 위험회피), 과격하며 반사회적이 될 수 있다고 본 기질 특성(높은 자극추구)에는 부정적인 지각을, 친사회적이고 성격발달에 유리한 기질특성으로 분류한 기질특성(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에는 긍정적인 지각을 함으로써 어머니들의 지각은 다분히 유아의 기질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자녀의 기질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까다로운 기질에는 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천희영, 1993, Crockenverg, 1986)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 지각에 따른 어머니의 만족도와 대응하는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의 유아의 전 기질 요인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중심의 양육행동을 보였다. 곧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대해 만족할 경우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아의 행동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Goth (2000) 및 Maziade (1989)가 강조하는 억압과 거부를 경험하지 않는 유아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에 만족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자율성 발달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만족도 및 양육행동 중에서 어머니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발달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그 첫 번째이고 다음 순은 유아의 인내력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아 영역에서 자율성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자율성과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자기 통제(Self-control)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최지현 (2001)의 연구에서도 온정적인 양육태도(affective rearing attitude)의 어머니를 가진 유아가 통제적인 양육태도(authoritative rearing attitude)의 어머니를 가진 유아보다 자기 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머니의 온정적 또는 통제적 양육태도는 유아기 기질과 성장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를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송명자 1995)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최지현의 연구결과와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연구에서는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기질과 직접 비교되지는 않았다.

넷째, 유아의 연대감 발달에는 유아 자신의 기질이 어머니의 만족도나 양육행동보다 더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이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유아의 자극추구 성향이 적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 기질 성향이 클수록 연대감발달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대감은 개인이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며 유아에게서 타인수용과 공감 능력을 측정하므로 사회성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아 영역에서는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만큼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다. 그러나 사회성발달과 관련해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최순자(2002)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권력지향적, 애정절회적, 규범지향적, 자기지향적 및 타인지향적 태도로 나누었는데 이 중 규범지향적 양육태도를 제외하곤 모든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발달과 관련됨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기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유아의 욕구충족지연행동(황원경, 1998)과 같은 유아 자신의 관련변인들이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었고, 가족상호작용유형(민혜영, 1999) 등과 같이 가족이 관련변인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아의 타고난 특성으로서 기질이 함께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성격발달

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일방적 책임이 있지 않고 유아 자신의 타고난 기질 또한 함께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 측면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가 대응하는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성격발달에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강조한 선행연구(Goth, 2000; Maziade, 1989) 보다는 '조화적합성' 개념을 사용하여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에 만족하는가 불만족하는가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본 선행연구(Thomas & Chess, 1977; Buss & Plomin, 1984)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교육을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어머니는 양육에의 일방적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 바람직한 성격발달은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지만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 또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 또한 유아의 타고난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양육에의 일방적인 죄책감보다는 유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갖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보다 큰 양육에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게하고 그로 인해서 유아에게도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가 실제의 대응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성격발달에 더 관련이 있으며, 유아에게 우호적인 아동중심의 양육행동 또한 어머니의 자녀기질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어머니들은 기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아의 기질, 즉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 성향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만 할 것 아니라 적절한 인내와 유도

및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기질적 속성에는 장점 또는 단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는 것(Cloninger et al. 1994)을 안다면 부모의 자녀기질 만족도 수준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 자율성이 총 변량의 29 % 밖에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지 못한 다른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후속연구에서는 JTCI의 하위척도들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실험설계를 더 정교화한다면 훨씬 큰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아 진다. 또한 연구의 사례가 비교적 적고, A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서울 근교 도시의 특성 상 연구대상이 주로 중류층이었던 점도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제한점이 된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최지현, 2001)도 많지만 저소득층의 유아가 일반 유아에 비해 예를 들어 통제성이 낮고 충동성이 높은 것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Priors, Sanson, Carroll, & Oberklaid, 1989)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경제적 계층을 포함하고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어촌 등 여러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을 포함한다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더 많은 사회문화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연옥, 김영희 (200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특성이 유아와 부모간의 상호작용

- 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제5호, 123-140.
- 남혜순 (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민혜영 (1999). 가족상호작용유형과 유아의 기질에 따른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2(1), 43-66.
- 방경숙 (2000). 영아기 어머니 역할교육 프로그램이 모아 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미례 (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검사, 청소년용. 서울: (주) 마음사랑.
- 우희정,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이영은, 강양희, 박혜신, 황은주, 문미영 (200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질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의 관계. *전인간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제2권, 23-42.
- 정옥분, Kenneth, R.,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2003).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2-4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29-38.
- 전인옥 (1996).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천희영 (1991). 아동용 측정도구의 개발연구. *아동학회지*, 12(2), 78-93.
- 천희영 (1993).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순자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6(3), 197-219.
- 최영희 (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 (I):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17-226.
- 최영희 (1995).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안정성의 양육태도 설명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187-196.
- 한세영, 박성연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한종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 (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 기질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4), 5-22.
- 황원경 (1998). 유아의 욕구충족지연 행동과 사회성발달의 관계. *아동교육* 7(1), 190-201.
- Baker, B. L. & Heller, T. L. (1996). Preschool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Experience of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513-532.
- Bates, J. E., Olson, S. L., Pettit, G. S., & Bayles, K. (1982). Dimension of individuality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at six month of age. *Child Development* 53, 446-461.

- Belsky, J, Rovine, M. J.,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and 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1999). A new conceptual paradigm from genetics and psychobiology for the science of mental health. *Aust N Z J Psychiatry* 33: 174-86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Cloninger, C. R. & Svrakic, D. M.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 120-141.
- Crockenberg, S. B.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 (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 and children*. NY: Jossey-Bass.
- Goth, K. (2000). *Konstruktvalidierung des JTCI*. unveroeffentlichte Diplomarbeit, J. W. Goethe Universitaet Frankfurt/M.
- Goth, K. (in print).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3-6.
-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ew York: Free Press.
- Harris, J. R. (1999). How to succeed in childhood. In S. J. Ceci & W. M. Williams (Eds.) *The nature-nurture debate: The essential readings* (pp. 84-95). Oxford, England: Blackwell.
- Harris, J. R. (2000). The outcome of parenting: What do we really know? (Commentary on Lykken). *Journal of Personality*, 68, 625-637.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Y: Basic Books.
- Kagan, J., Reznic,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s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Lengua, J. L., West, G. S., & Sandler, N. I. (1998).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symptomatology in children addressing contamination of measures. *Child Development*, 69, 164-181.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infant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Maziade, M. (1989). Should adverse temperament matter to the clinician? An empirically based answer.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Chapter 22, pp. 421-436). Chichester: Wiley.
-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 Research*, 34(4), 198-204.
- Milliones, J. (1978).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49, 1255-1257.
- Plomin, R. (1990). *Nature and nurture: An introduction to behavior genetic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Priors, M., Sanson, A., Carroll, R., & Oberklaid, F. (1989). Child self-control rating scale: Validation of a child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2), 179-183.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John Wiley & Sons, Inc.
- Rubin, K. H., Hastings, P. D., Chen, X., Stewart, S. L.,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 1614-1629.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1 차원고접수 : 2006. 5. 10.
심사통과접수 : 2006. 6. 23.
최종원고접수 : 2006. 6. 27.

K C I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Character, and Mother's Satisfaction and Rearing Behavior in Korea

Hyunsook Oh

Han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 mother's satisfaction and rearing behavior on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children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temperament of children. The JTCL/3-6 was used to assess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children related to the satisfaction and rearing behavior of their mother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satisfaction on all variables. Mothers were more unsatisfied as their children's temperament tendency of Novelty Seeking and Harm Avoidance increase and more satisfied related to Reward Dependence and Persistence.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mother's satisfaction and rearing behavior: The more mothers showed more child-centered behavior as the higher the mother's satisfaction. On the dimension of character development, a mother's satisfaction with children's temperament Harm Avoidance was found as the best predictor of Self-directedness. But the best predictor of Cooperativeness in this study was the children's temperament Novelty seek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mother's satisfaction with children's temperament is more important than her rearing behavior itself for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her children. The Need of a mother's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her satisfaction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 temperament was discussed.

key words : mother's satisfaction, rearing Behavior, temperament, character, character development